Economy p/8
"컴퓨터로 견본주택 구경"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제3246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19

프로야구 '최고령 전성시대'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주)이엔티아이 (1644-5210)

News p/5
메르스 확진자 8일만에 '0'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제3246호 www.metroseoul.co.kr

Life p/14
신세계, T커머스 '꼼수'

이번 국회법 파동의 단초가 된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것이 민심수습과 함께 소모적인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본질은 사라지고

이슈 분석

새누리당 콩가루 만든 국회법 파동… 실익없는 정쟁만 난무
시발점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으로 몰아붙이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낼까?

사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의회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논의다. 국내 헌법·행정법 학계에서도 범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헌법상 유일한 입법권자인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자신의 헌법학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파동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유족들과 4·16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직원 절반 가량을 직업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등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적인 내용을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의해주는 대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타협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원하는 결론을 얻으면 될 일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향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격노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국회법 개정이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의식한 정치공세이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런 정략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위의 직원 정원 ▲사무처 조직권한 ▲공무원 파견 등에서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한 시행령 내용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시행령은 '(직원의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면서 어느 부처에서 몇 명의 공무원을 차출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조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행령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옛 해경) 간부들도 차출하도록 했다. 이들 부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잠재적 조사대상이다. 시행령은 진상규명의 핵심역할을 맡은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유족측은 '국내 검찰의 정치적 성향에 미루어 사실상 민감한 의혹에 대한 규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반론을 역설할 뿐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하지만 세월호법시행령의 모법 침해 논란은 세월호조사위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언제든 되살아날 불씨다.

언제든 제2의 국회법 파동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시행령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13조원 없어서…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로

그리스 은행 뱅크런 우려… 정부 긴급점검 회의

'허리띠를 더 조를 것이냐, 파산할 것이냐?' 결국 그리스 운명은 그리스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

그리스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정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국민투표를 시행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지난 27일 그리스 정부와의 협상에서 앞으로 5개월 동안 120억 유로(약 13조4000억원)를 추가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 실시하는 대신 연금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등을 요구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유지를 채권단에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유로그룹(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은 27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그리스가 요청한 구제금융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유로그룹은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리스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은 6월 30일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올해 2월부터 이어진 구제금융 협상에서 모든 수준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거절했다"며 "다음 긴급회의에서는 그리스를 배제한 채 '플랜B'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랜B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전제로 대응 방안을 짜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의회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채권단의 긴축 압박은 그리스를 느린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그리스는 굴복하지 않겠다. 국민투표의 목적은 협박을 받는 대신 명예로운 합의와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을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ECB마저 유동성 공급을 중단키로 하면 그리스 은행들은 당장 월요일인 29일부터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의회가 28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정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7월 5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을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통과시킨 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앞줄 오른쪽)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외신은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체로 팽팽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설문 결과 채권단의 협상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47.2%, 반대는 33%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는 29일 주식·외환시장 개장 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그리스발 금융불안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안전통화 선호 현상으로 엔저 현상이 완화돼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과 부정효과가 교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규기자 unha@metroseoul.co.kr

새누리당 내전돌입… 유승민 생사 기로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새누리당이 내전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섰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친박(친박근혜)계와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어떻게든 현 지도체제를 끌고 가려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친박계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유 원내대표를 기필코 사퇴시킬 태세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될 경우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부터 본격적 공세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가 '유승민 찍어내기'에 달려드는 배경에는 그동안 세력 대결에서 판판이 밀려 상당히 위축됐던 친박계가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주도권 장악을 위한 권력 다툼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는 5명의 선출직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비박계에서 3명이 당선됐다.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는 친박계의 물밑 지원을 받았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정몽준 후보에게 압도적 표차로 무릎을 꿇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친박계가 밀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일방적 표차로 꺾었다. 유 원내대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선됐다.

현 체제를 흔들어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 지분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친박계의 의도라는 지적도 많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친박계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함으로써 현 지도체제를 사실상 와해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해 보수 진영에 새판짜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며 수위를 높이자 비박계에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임계치를 벗어나면 반격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비박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동을 열어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친박이 벌이는 일은 메르스 사태보다 더욱 참담하다"면서 "경기도 장기 침체 위기에 빠졌고 가뭄도 극복이 안 된 마당에 원내대표 몰아내는 게 국사의 전부냐"고 따진 바 있다.

현재 친박계 의원들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9일 열릴 예정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북한 전쟁 위협에 정부 '연평해전 추모사'로 맞불

북한이 지난 24일 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파국을 선언한 뒤 전쟁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연평해전 추모사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한 장관이 오는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제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전사한 장병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할 경우 얼굴을 내비치는 정도가 다였다. 2013년 해군참모총장이 추모식을 주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격을 따지며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제2연평해전을 그린 영화 '연평해전' 상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추모식은 종전과 같이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다. 한 장관은 추모사를 낭독하고 전사자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영화 시작전 김민석 대변인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연평해전이 영화로 제작돼 국민에게 잘 알려지게 되면서 이 기회에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라며 "목숨을 바쳐 우리 영해를 사수한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됐다"며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저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조평통 성명에서 북한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었다"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인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북한은 경비정 1척이 대파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일본도 "비판언론엔 광고 끊어 짓뭉개야"

총리 친위 모임에서 언급
청와대 행보와 닮은 꼴

일본에서도 여권 권력층에서 기업체의 광고를 끊어 비판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말이 나왔다. 다름 아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위 모임에서 나왔다.

흡사 "인터넷만은 반드시 정리하고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공언했다는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연상시킨다. 민 비서관은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박근혜 정부의 허문도(5공 언론통폐합 주도)'에 빗대 추켜세운 인물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제안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눈밖에 난 언론의 생명줄(기업광고)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비서관은 데일리안 대표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청와대 문고리 4인방도 민 비서관을 챙긴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민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김성우 홍보수석 역시 국민일보에 실릴 정부 광고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가 박 대통령을 희화화 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을 담당하는 청와대 핵심들이 일본의 아베 친위대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베 친위 모임의 문제 발언은 지난 25일 자민당내 아베 친위 모임인 '문화예술간담회' 회합에서 나왔다. 처음 모임의 발언을 문제삼은 일본 내 언론은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그리고 친위 모임이 비판언론이라고 지목한 오키나와 지방지 등이 전부였다. 하지만 28일 현재 일본 내 다른 언론들까지 가세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시 모임에서 오오 영남 자민당 중의원은 "언론에 대한 응징은 광고료 수입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며 "경단련(한국의 전경련)에 작용을 가해 (비판언론을) 징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우에 타카히로 중의원도 "후쿠오카 청년회의소 의장 때 비판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을 궁리한 적이 있다"며 "일본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스폰서(광고·협찬)를 하지 않는 것이 비판언론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자민당의 아베 친위대 모임에서 짓뭉개야할 대상으로 지목된 비판언론 중의 하나인 류쿠신보를 들고 새로운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지난 14일). 오키나와 지방지인 류쿠신보와 오키나와타임스에 대해 아베 친위대 인사들은 "기업의 광고를 끊는 것이 비판언론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공언해 헌법상 언론자유를 짓밟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심지어 하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은 "정말 오키나와의 두 신문사는 반드시 짓뭉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하쿠다 위원은 소설가 출신으로 방송에는 문외한이다. 아베 총리의 낙하산 인사로 현재의 직위를 꿰찬 인물이다.

자민당 문화예술간담회는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와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 등이 결성한 모임이다. 관방 부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 다음 자리다. 우리로 치면 홍보수석 다음의 대변인이나 뉴미디어비서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으로 봉합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딴판이다.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 통제는 우리가 한 수 위인 것 같다"거나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일본은 아직 멀었다. 우린 이미 이미 실행하고 있다. 광고주에게 압박해서 언론 목조이기,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장악해서 방송국 길들이기"와 같은 말들이 나돌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회 "내츄럴엔도텍 임원 처벌 가능"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부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입법조사처의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 조사 회답서(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뢰)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임원 세명이 2015년 4월 22일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사의 주가는 4월 16일 9만1200원을 최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3일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월 11일 현재 1만5200원으로 최고점 대비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관련 임원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로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했다.

내부자거래는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내부자거래 처벌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자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을 회피한 손실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손실 회피액은 22억원이다. 임원 세명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변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병형기자

평택성모병원장 메르스청문회 불참 이유는?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청문회 출석이 미뤄졌다. 병원 불이익 때문에 이 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애초 여야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원장을 불러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원장이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회의 일정도 늦춰졌다. 이에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는 애초 일정보다 늦은 다음 달 1일쯤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회의는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야당은 가급적 이 원장이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당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규명을 먼저 하자는 견해다.

이 원장은 앞서 "정부는 메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서 "더 이상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국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볼 때마다 되새김질한다"면서 "1차 역학조사팀이 나왔을 때 코호트 격리를 했더라면 병원 내 환자 그리고 일부 퇴원한 환자, 그리고 문병했던 가족까지 감염 가능성을 열어뒀더라면 지금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유행이 심각했던 경기도 평택시 평택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 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평택성모병원 인근 식당에서 메르스 여파와 관련,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현재 이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소신 발언을 할 경우 병원이 자칫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며 국회 출석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특위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애초 이 원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평택 지역사회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나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하자는 상황이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평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수 있고 메르스가 아직 진행 중이니 평택성모병원장은 나중에 불러도 된다"고 말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29일 만나 증인 채택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메르스 특위는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최경환 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시한은 다음 달까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윤정원기자 garden@

행자부 "조정교부금 확충안 마련 추진"

조정교부율 재조정 논의… 2017년부터 5000억 이상 증편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정 불균형 완화 기대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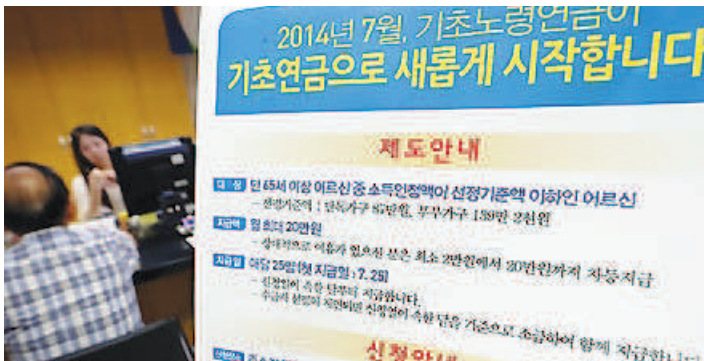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폐쇄된 상태로 2년간 운영되고 있는 마산연안여객터미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해 2013년 7월1일자로 폐쇄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이 폐쇄된지 2년이 되도록 이전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 28일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는 현재 터미널에서 돝섬해상유원지를 오가는 유람선과 도선 등 두 척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 영훈학원 前이사진 해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영훈 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 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교육청은 입시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교비를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하고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정 전 이사 등은 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영훈학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정 전 이사 등이 김 전 이사장의 입시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안일하게 이사회를 운영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法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부모재력 있으면 무효"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렸어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경우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의 아빠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또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 범위에 처자식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 계약서 합의 필요

생활법률

최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집주인의 이런 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관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다. 앞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통해 못질할 수 있게 합의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거나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관련 판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라 재판에 이르기 전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억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대부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계약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십개 이상의 합의(계약)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임차인은 그림이나 기타 벽걸이 장식을 설치할 수 있으나 못과 고정 장치는 목적물에 손상을 덜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천장에 거는 설치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모든 구멍을 메우고 덧댈 책임이 있다' 등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못질이 었음을 분명히 입증하도록 하고 재판을 신청하기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유선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56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7	14	16	31	40	3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7,330,002,75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902,797
3등	5개 숫자 일치	1,398,589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메르스 확진자 8일만에 '0'… 안심은 일러

사망자는 1명 늘어… 환자 중 15명도 불안정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은 지난 20일 이후 8일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1명 더 나와 총 32명으로 늘었다. 50대 중반으로 고령자 범주에 들지 않는데다 기저질환도 없는 환자였다. 이로써 치사율은 17.6%로 올라갔다.

퇴원자도 1명 추가돼 총 91명이 됐다. 확진자의 절반(50%)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선 셈이다. 이처럼 주말을 고비로 메르스 현황이 주춤하면서 종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메르스 종식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59명 중 15명(25.4%)이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여기에 강동성심병원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환자도 나올 수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투입하고 면접조사, 병·의원 이용기록, CCTV 등을 분석해 메르스 접촉자 4825명을 선정했다.

이 중 자가와 병원에 각각 격리 중인 사람이 394명, 137명이다. 보건소에서 하루에 2차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는 4294명이다.

대책본부는 전화확인, 문자설문, 일대일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접촉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추가 접촉자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메르스 확산 병원으로 집중 관리대상이 된 서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 입구에 전면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강동성심병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노출 범위가 많았던 173번(여·70·사망) 환자 때문이다. 이 환자는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만에 숨졌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의원과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5곳을 전전했다. 메르스 증상을 보인 12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감시망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5000명에 가까운 접촉자가 발생했다. 이 중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173번 환자가 정부 감시 대상에 빠진 것은 강동경희대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가 동행자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8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173번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정례브리핑에서 "강동성심병원은 앞으로 추가 확산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중요한 병원이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 막고 종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대책본부는 이외에도 건국대병원은 다음달 5일, 강동경희대병원은 다음달 10일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대책본부는 또 170번째 환자가 방문해 집단 발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기도 구리의 카이저재활병원도 다음달 5일 기한으로 집중관리하며 주시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판다'로 가득찬 사직구장 야생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하는 '1600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가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 선보이고 있다. 수공예 종이작품으로 만들어진 판다 1600마리가 전시됐다. /연합뉴스

김한길·이인제 소환 재통보

檢, 후속조치 검토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8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측근 정치인 지원 명목으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지만 출두 당일 연락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

2013년 옛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역시 지난 24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게 조만간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는 한편, 이들이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홍원기자 hong@

변호사 시험 대비… 로스쿨 '조기종강' 못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을 조기 종강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조기종강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학칙을 개정해 조기종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 계획보다 조기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출신인 최보연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대 로스쿨이 학사규정을 무시한 채 유급대상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로스쿨의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A로스쿨은 2학기당초 수업시간표상 9~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집중강의로 10월 초 강의를 마쳤다. 또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조기 종강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서 매 학년도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지난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홍원기자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탑승객 집단 손배소 청구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5500만~27억원으로 총 3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당시 탑승객이었던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공항에 접근할 당시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체적 피해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배상액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시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으며 탑승객과 승무원 총 180여명이 부상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후 탑승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50만 달러(5억8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홍원기자

일·휴양·문화 결합… 제주를 '실리콘 비치'로

다음카카오·아모레퍼시픽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신재생에너지 벤처 육성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 축하 행사 상징물의 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근혜 대통령,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뉴시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계획

- 문화, SW가 융합한 창조 허브로 조성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에너지 자립섬 시범 사업 추진
- 1,569억원 규모 지원 계획

제주통합관광 정보 서비스 플랫폼

-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방형 사물인터넷 활용. 오픈 플랫폼
- 다음 카카오: 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제주도 공공기관 → 제주관광 홍보 라이브러리 → 제주관광 홈페이지 → 글로벌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구축
- 빅데이터 분석 정보 / 오픈 파일럿 콘텐츠 제공 → 소비자 기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섬, 제주도를 한국판 '실리콘 비치'로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제주도, 다음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은 제주시에 13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픈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제1센터가 들어설 제주시 이도동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지역 국회의원, 경제인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제주도를 스마트 관광과 벤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국 샌타모니카 비치나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치처럼 해안가 휴양지에 일과 휴양, 문화를 결합한 IT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휴양과 창업이 공존하는 한국의 '실리콘 비치' 지향 ▲스마트 관광 등을 통한 고품질·고부가가치 관광 사업화 지원 ▲'탄소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 지원 등을 주요기능으로 출범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카카오와 1000만평 규모의 다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지원해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을 제주도로 끌어 들여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첨단IT 기술을 관광과 쇼핑산업에 접목하고 K뷰티와 제주 녹차 체험 공간, 문화산업 등을 연계한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6차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 ICT(정보통신기술)를 문화와 관광에 접목하고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를 사업화해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관광 섬이자 에너지자립 섬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 구현을 목표로 전국에 설치 중인 17개 혁신센터 가운데 13번째다.

◆ 다음카카오… 1569억 규모 펀드 조성

다음카카오가 지원하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1센터는 제주벤처마루 3, 4층에 있으며 총 1924㎡ 규모다.

다음카카오는 IT·문화, 스마트관광, 신재생에너지 벤처 육성 등에 총 1569억원(투자 669억·융자 9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센터를 도와 제주도에 점차 늘고 있는 '문화 이주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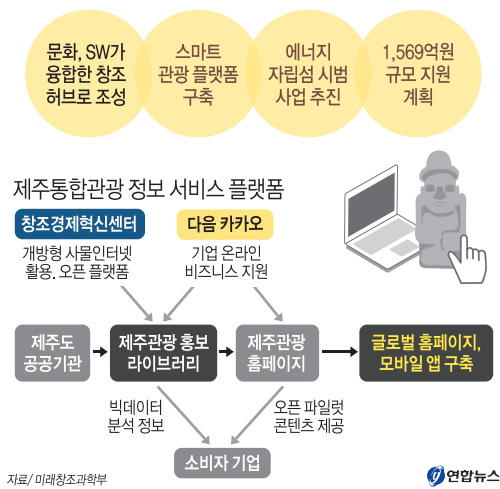
다음카카오는 IT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문화예술 작품을 O2O로 연결해 판매와 유통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여기에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기부로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플랫폼인 뉴스펀딩도 활용된다.

다음카카오는 또 O2O의 기반이 되는 비콘(위치정보송신기·Beacon)을 활용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스마트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와 함께 제주도 전역에 비콘을 설치해 오픈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다음카카오는 이 밖에 서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원격 멘토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다음카카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창업 허브 기관들과 콘텐츠 공동 개발, 인재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주혁신센터는 또 글로벌 인재가 모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공동 작업과 제작 공간도 제공한다.

◆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녹차 중심 산업단지 조성

아모레퍼시픽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원 형식으로 오는 9월 화장품 산업의 육성에 특화된 '제주 창조경제혁신 제2센터'를 설립하고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아모레퍼시픽 창조경제혁신 제2센터는 일단 제주시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 설치·운영된다. 이후 2017년엔 서귀포 서광다원 부지 6420㎡에 연면적 3423㎡ 규모로 '창조경제혁신 제2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과 녹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제주도 생물다양성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화장품 분야 창업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주 지역 내 화장품 산업 연구·육성을 지원하며 'K-뷰티-문화-체험' 연계의 고품격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6차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유명 와이너리(와인양조장)처럼 1차 산업(녹차 재배)과 2차 산업(녹차 원료화 및 상품 생산), 3차 산업(관광 등 서비스업)이 융합돼 함께 시너지를 내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제주 지역 자연 생태의 보전과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9월 1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도 설립한다. 또 제주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상생펀드 중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펀드에 3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김수정·정문경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올 1분기 자영업자 폐업 증가… 가계부채 뇌관되나

50대 이상 대부분 주담대 이용해 사업비 활용 채무상환능력 저하 시 가계대출 폭탄 불가피

올들어 자영업의 폐업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에 진출하는 50대 이상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폐업 위험도 높은 만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어든 546만3000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3년 552만명(-2만8000명), 2014년 551만2000명(-8000명) 등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5만명가량 감소는 이례적이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영업자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일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 7.8개, 독일 9.3개인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음식숙박업도 인구 1000명당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문제는 이런 은퇴층의 자영업 비중 확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을 보유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대출금을 자영업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용도로 쓰인 대출 규모는 2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0.9%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지난해 3월 기준)은 50.7% 수준이다. 이는 은퇴층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동안 나타난 은퇴층의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퇴출이 그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 '급물살'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협상 재개… 노사화합 '관건'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조기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다 금융당국도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연내 통합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수용… "통합절차 재추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또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과 업황이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하나·외환의 통합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합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 등도 잡을 계획이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후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남은 변수는 노조와의 순조로운 협상 여부다. 올 초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노조의 반발로 철회한 경험이 있던 만큼 노조와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당시 외환 노조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과 108배투쟁,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반발한 바 있다.

◆ 노조와 협상 변수…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받을 것"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조건 유지 등 고용 안정화를 명시한 새로운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는 법원이 노사간 대화를 권고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통합 행명에 피인수은행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조기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작용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을 내놨지만 '5년간 외환은행 독립법인 유지'라는 2·17 합의서에 발목이 잡혀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내 통합이 어려울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합병 시 납입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존속법인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약 2000억~3000억원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노조와 완만한 화합만이 타개책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 측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환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29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하나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취지와 노사간 합의 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자연재해·도시화' 따른 피해구제 보험 미비

亞 감독당국, 보험사 재무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아시아 보험시장이 경제발전과 글로벌화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보험규제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보험시장에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도입이 빨라지고 있다"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성과 운영리스크가 커져 보안기술 개발비용까지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고, 인구팽창과 도시화에 따른 피해규모 또한 늘고 있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은 미비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아시아의 지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재해로 인한 손실은 글로벌 총액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엔 재해리스크가 81%를 차지할 정도로 손실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 30년간 전 세계 재해보험금 중 아시아의 보험금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대화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시장의 글로벌화에 맞춰 국제적 자본요건, 기업지배구조, 소비자보호와 같은 글로벌 표준 등 보험규제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선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지난 2011년 보험핵심원칙(ICPS)을 개정하고 다각화된 대형 보험그룹(IAIGs) 감독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시아 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위험기준자본(RBC)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적 RBC제도는 기존의 단순 재무상태 측정을 넘어 사이버보안, 운영·재해 리스크 등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RBC제도 로드맵을 발간했다. 인도는 이에 앞선 2013년 RBC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제도도입을 주도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C-ROSS)로 알려진 '2세대 지급여력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상태다.

김진억 수석담당역은 "싱가포르는 2004년 선도적으로 RBC제도를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험회사들은 위기를 잘 극복했다"며 "현대적 RBC제도가 추구하는 보안·운영·재해 리스크는 비록 계량화가 쉬지는 않으나 리스크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리스크관리 능력 배양

보험감독당국은 자국 보험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감독능력 배양에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국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ERM 요건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ERM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포함하는 전사적 위험관리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올해 내 ORSA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ORSA를 시험 운영하기로 했다. ORSA를 호주는 2013년, 미국은 2015년 도입했고 유럽에선 다음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회원국 사이에 보험감독실무와 표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국 감독당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보험 훈련과 연구협회, 재무안정성협회,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기구와 공조해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 수석담당역은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해 건전성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신한카드 '스마트워치'로 손쉽게 앱카드 결제하자

신한카드는 28일부터 안드로이드웨어(Android Wear)기반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신한 앱카드'와 '스마트(Smart)매니저', '올댓쇼핑&월렛' 등 3개 앱을 이용해 12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앱카드의 경우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결제용 바코드나 QR코드, 혹은 1회용 카드번호가 생성돼 앱카드 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신한 Smart매니저' 앱을 통해서는 이용대금 명세서와 최근 이용내역, 다음달 결제 예정금액, 이용가능 한도, 포인트, 샐리(Sally,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자동 할인 서비스)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센터 간편연결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세종시 강남’ 중흥-한신·제일, 분양 격돌

‘한신 휴플러스·제일풍경채’ 2510가구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1446가구 공급

2-2생활권과 함께 세종시의 강남으로 꼽히는 2-1생활권에서 중흥과 한신·제일건설이 맞대결을 벌인다. 앞서 지난해 말 2-2생활권에서 공급된 아파트로 많게는 7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터라 특히 이번 분양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행정타운, BRT, 상업시설과 인접

한신공영·제일건설 컨소시엄이 P1구역(M1·L1블록)에 공급하는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 지상 29층, 49개동, 전용면적 ▲59㎡ 297가구 ▲75㎡ 703가구 ▲84㎡ 618가구 ▲95㎡ 6가구 ▲97㎡ 283가구 ▲98㎡ 580가구 ▲104㎡ 10가구 ▲107㎡ 6가구 ▲117㎡ 1가구 ▲135㎡ 6가구 등 전체 2510가구다.

중흥이 P2구역(M2·L2블록)에 짓는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는 지하 1층, 지상 29층, 29개동, 전용면적 ▲51㎡ 51가구 ▲59㎡ 151가구 ▲84㎡ 702가구 ▲98㎡ 96가구 ▲108㎡ 440가구 ▲115㎡ 6가구 등 1446가구다.

두 단지가 들어가는 2-1생활권은 세종시의 핵심시설인 중앙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가 인접한 곳이다. 여기에 양대 교통축인 1번국도와 BRT와도 가까워 노른자위 입지로 평가된다. 특히 추첨이나 최고가 낙찰 방식을 택한 다른 생활권과는 달리, 이곳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설사가 선정됐다. 그만큼 독특하고 차별화된 단지를 만나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약간의 입지 차이는 있다. P2구역은 BRT역까지 도보 10분 이내 거리인 반면, P1구역은 15분가량 소요된다. 반대로 1번 국도는 P1구역과 접해 있어 바로 진입할 수 있지만 P2구역은 한 블록을 지나야 한다. 교육시설은 P1구역이 초·고교를, P2구역이 초·중교를 끼고 있다.

◆P1구역 ‘커뮤니티’, P2구역 ‘세대 평면’

두 아파트 모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독특한 외관, 특화된 평면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설계공모에서 1등을 차지했던 P1구역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는 평가 당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을 더욱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내수영장을 조성키로 해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한신공영 제공

일반적인 59㎡와 84㎡ 세대 외에는 75㎡, 97㎡, 98㎡ 등의 틈새평면을 주력평형으로 구성했다. 84㎡(34평형) 또는 100㎡(40평형)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수요자를 겨냥해 20평대와 30평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세대마다 알파룸과 팬트리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기에 가능한 주택형 구성이었다.

P2구역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는 복층 및 테라스 설계, 라운드 평면 등 세대 내부에서 강점을 보였다. 복층으로 만들어진 108E와 F타입은 1층에는 테라스와 거실·주방을, 2층에는 방을 배치했다.

108A타입은 한옥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마감재를 사용해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거실 한켠을 다과공간으로 꾸미고, 그 옆 외부 발코니를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부는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모델하우스와 비교해 지금 거주 중인 집은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기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분양가는 비슷, 계약조건은 P1구역이 유리

3.3㎡당 평균 분양가는 P1구역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는 870만원, P2구역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는 880만원으로 책정됐다. 59㎡, 84㎡, 98㎡ 두 단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택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차이는 거의 없다. 발코니 확장비는 면적에 따라 P1구역 612만~1576만원, P2구역 560만~1800만원이 추가된다.

계약조건은 P1구역이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각 20%(10%+10%)와 60%이며, 2회차 계약금 10%부터 중도금까지 총 70%에 대해 무이자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P2구역은 계약금이 10%,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원주 봉화산 푸르지오’ 순위내 마감

대우건설, 부산·구리도 분양 진행

대우건설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원주 봉화산 푸르지오’의 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 가구가 순위내 마감됐다고 28일 밝혔다.

969(특별공급 27가구 제외)가구를 모집하는 이번 분양에서는 1863건이 접수되면서 최고 경쟁률 3.75대 1, 평균경쟁률 1.92대 1를 기록했다.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2지구 A2블럭(단계동 1184 일원)에 위치한 ‘원주 봉화산 푸르지오’는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60㎡ 423가구, 72㎡ 347가구, 84㎡ 226가구 등 총 996가구가 들어선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85㎡ 이하로 구성된다. 원주 중심권역인 단계동에 위치해 중심상업시설과 원주시청 등 관공서 이용이 편리하다. 롯데마트, AK플라자, CGV 등 상업시설과 원주시청, 연가구 세브란스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하다.

김용균 원주 봉화산 푸르지오 분양소장은 “원주의 최중심 권역인 단계동에 위치해 주위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2017년 개통예정인 KTX 서원주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 기간 부산과 경기도 구리에서도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오픈한 ‘구리 갈매 푸르지오’와 ‘대연 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의 경우 이번 주말까지 3일간 각각 약 2만 5000여명, 2만여명이 방문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60-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대연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규모다. 전체 1422가구 중 59㎡ 81가구, 74㎡ 184가구, 84㎡ 543가구, 99㎡ 58가구 총 86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체의 약 93%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평면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 C1블럭의 ‘구리 갈매 푸르지오’는 총 921가구다.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전용면적 84~142㎡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10개동으로 구성됐다.

대연 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5분출구 옆(부산시 수영로 472 구.남천동 30-4)에 있다. 구리 갈매 푸르지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53-2(별내 농협 본점 건너편)에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견본주택 6만명 방문 대림산업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견본주택에 6만여명이 다녀갔다고 28일 밝혔다.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는 대림산업이 최초로 공급하는 테라스 하우스로 총 576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이날 내방객들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컴퓨터로 견본주택 구경하고 온라인 결제”

국토부, 154억 투입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착수

앞으로는 집에서 모델하우스를 실제 방문한 것처럼 곳곳을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브이리얼은 지난달부터 국내 최초로 웹 플레이어 기반의 3D쇼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3D쇼케이스는 촬영 간격이 3~5보 이내로 짧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화면이 연속적이어서 게임하듯이 공간을 실제로 걸어 다니는 느낌을 준다.

가상 산책뿐 아니라 인형의 집을 보듯 건물의 구조를 입체도면으로 열람할 있다. 또 실측 평면도로 전환이 가능해 신축 건물의 경우 인테리어 평면도를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 복층 건물의 경우 층별로 이동이 가능해 건물 바닥에 가려진 층별 공간정보를 투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4년 동안 약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계약자는 중개업소 방문 없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전자서명)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해 내년초 서울 서초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철 브이리얼 대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3D쇼케이스를 부동산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기존 시스템보다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줘 모델하우스 외에도 부동산 매매나 리모델링에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에스원 '신바람'

| 마켓인사이트 |

가정용 보안 수요 증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저평가 매력도 돋보여

오는 12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연합뉴스

종합보안업체 '에스원'이 여름 휴가철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의 수혜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CCTV(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CCTV를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기기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정책 호재에 주가도 화답하고 있다. 지난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스원의 주가는 전일대비 3.19% 오른 7만7700원에 마감했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주가는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에스원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정책적 호재 등으로 인해 하반기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 변경으로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원의 상품판매와 보안시스템 서비스 매출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2분기 시스템 보안 가입자가 1만6000면 늘어 가입자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가입자당 월매출액(ARPU)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0.3% 감소에 그쳐 감소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정용 보안 수요가 꾸준히 늘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도 "에스원의 주요 사업부문인 보안시스템 서비스가 2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9.3%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에스원의 2분기 매출 예상액은 4748억원, 영업이익은 4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 18.8%, 9.8%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하반기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양종인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건물관리·상품판매·정보보안 등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11.9%로 상반기 9.9%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또 "6월에 진출한 주택임대관리업은 보안업무와 빌딩관리 노하우를 접목한 것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저평가 매력도 돋보인다.

라진성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의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은 커진다"면서 "주가수익비율(PER)은 20.5배로 과거 5년 평균 24.5배에 비해 저평가돼 매수에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영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주가의 2015년 예상 PER는 21배, 기말배당수익률은 2.2%"이라며 "글로벌 업종 평균 PER는 23배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9.1% 증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률은 1분기 9.5%에서 4분기에는 12.5%로 개선될 것으로 공 연구원은 전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삼성물산 합병' 시너지 상반된 시각… 주가 '안갯속'

삼성 "2020년 건설부문 매출 23조6000억원 성장 가능"
엘리엇 "양사 건설사업 공통점 없어… 시너지 기대 못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 공시 직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다만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주가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주 거래 마감일이었던 26일 삼성물산 주가는 6만6300원이었다. 그보다 한달전인 5월 26일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가는 5만원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지만 합병 공시 직후 주가는 상한가를 친 후 7만원대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6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제일모직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1만3000원에 첫 거래를 시작한 제일모직 주가는 올해 1월 2일과 4월 23일을 제외하고는 17만원을 넘긴 경우가 없다. 그러나 합병 공시날에는 상한가를 쳐서 18만8000원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17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삼성 측은 합병 발표 당시 청사진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경우 통합 삼성물산은 2020년 60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설부문 매출은 2014년 16조2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23조6000억원으로 성장한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너지 창출을 통해 6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생긴다며 설명을 보강하기도 했다.

반면 엘리엇 측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통해 합병 시너지, 특히 건설사업부문의 시너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이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지난 6년간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었던 14.0%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며 삼성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매우 복잡한 기반시설과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지만 제일모직은 단순한 빌딩과 리모델링이 대부분"이라며 "양사의 건설사업에는 공통점이 없어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마다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견도 상이했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한 국내 증권사들은 합병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으로 건설사업이 통합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일모직의 패션·식음료서비스가 해외 진출할 때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합병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영 환경이나 명백한 경영 시너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원도 합병 발표 당시 "삼성가에 돌아가는 이익을 제외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합병의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추경예산 편성 기대감에 주식형펀드 플러스 전환

국내 주식형펀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에 한 주간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28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26일 공시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가치는 한 주간 1.84% 상승했다. 4주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소유형 기준으로 모든 유형이 상승했다. 그 중 중소형 주식펀드가 중소형주 강세에 따라 2.26%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일반주식펀드와 K200인덱스펀드는 각각 1.70%와 1.68%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1759개 펀드 모두 플러스 수익을 냈고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펀드는 756개였다. 특히 증권주나 헬스케어 업종,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우수했다.

한편 국내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은 한 주간 채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0.02%였다.

국내 채권시장이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부담감으로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주간 수익률이 0.38%였다.

그리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주식펀드의 가치가 3.87% 올랐고 인도주식펀드와 일본주식펀드도 각각 3.40%, 3.16%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주식펀드는 1.42% 떨어졌고 러시아주식펀드도 1.26% 하락했다. /김민지기자

금감원 Q&A

연금 관리, 통합연금포털서 비교부터 설계까지 논스톱

Q. 노후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연금을 가입했는데, 제가 가입한 연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기가 어렵고 노후도 잘 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 노후소득 준비정도를 파악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시스템을 지난 6월 12일 오픈했습니다.

'내 연금조회' 메뉴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 링크돼 있어 접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일, 적립금·평가액 등 연금계약정보를 제공하며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 연금액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니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무설계' 메뉴에서는 연금액을 비교·분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납입액을 제시해주고, 예·적금 등 연금 이외의 보유자산을 입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입액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김민지기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제일기획, 칸 광고제 쌍끌이 수상

삼성 '룩앳미' 캠페인 관심 집중
제일기획 분단극복 광고 눈길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제일기획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광고제를 휩쓸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 칸 국제광고제에서 타이타늄상 1개, 금상 6개, 은상 9개, 동상 11개로 역대 최다인 27개 상을 수상했다. 제일기획은 금상 1개, 은상 5개, 동상 6개 등 총 12개 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룩앳미(Look At Me)' 캠페인 등 공감·치유의 콘텐츠로 글로벌 광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삼성전자 '룩앳미' 캠페인은 사이버부문 금상, 라이언즈 헬스 은상 등 5개 상을 받았다.

칸 라이언즈에서 금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제일기획 임직원들이 사이버 부문 심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일기획 제공

룩앳미는 삼성전자 '런칭 피플' 캠페인의 하나로 자폐 어린이의 소통을 돕고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으로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

조현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 상무는 "룩앳미 캠페인은 기술 혁신이 소비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삼성전자의 철학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터키 삼성전자의 비디오 콜센터 프로젝트인 '히어링 핸즈(Hearing hands)' 캠페인은 프로모션과 PR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서비스 '백업 메모리(Back up memory)'는 헬스부문 금상을 비롯해 모두 3개상을 수상했다.

제일기획 본사와 버거킹이 손잡고 한국인의 등굣길·출근길에 활력을 더하고자 기획한 '아침은 왕처럼' 캠페인은 미디어 부문 은상 2개를 받았다. 또 제일기획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좁히고자 드림터치포올, 탈북민과 함께 개발한 '글동무' 앱은 모바일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제일기획 스페인법인은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함께 진행한 '애니멀 카피라이트'로 동상 2개를 받았다.

한편 올해로 62회를 맞는 칸 광고제는 광고·홍보·마케팅 캠페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창의성을 평가하는 행사로 4만여개 작품이 출품됐다. 필름(TV 광고), 프레스(인쇄), 아웃도어(옥외광고), 사이버(인터넷) 등 총 20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앞서 삼성전자는 칸 광고제에서 2012년 4개, 2013년 3개, 2014년 16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TV, 美 소비자 만족도 2년 연속 1위

성능·신뢰 등 전부문 최고점

삼성전자 TV가 미국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저명한 시장조사기관인 J.D. 파워의 '2015년 TV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HDTV 전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J.D. 파워는 5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TV를 구매한 소비자 3750명 이상을 상대로 순위를 산출했다.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제품의 성능, 신뢰성, 기능, 가격, 조작의 용이성, 스타일과 외관, 품질 보증 등 7개 요소로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했다.

삼성전자 TV는 50인치형 이상 부문에서 871점을, 50인치형 미만 부문에서 856점을 기록해 각각 비지오(867점)와 LG전자(846점)를 제치고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뛰어난 밝기와 세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 삼성 SUHD TV는 지난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에서 '2015년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SUHD TV를 소개했다. /삼성전자 제공

5월 미국 유수의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도 역대 액정표시장치(LCD) TV 중 가장 높은 점수(81점)를 기록하며 대형 TV 분야 1~3위를 휩쓴 바 있다.

소비자들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컨슈머리포트와 J.D. 파워 평가는 실제 북미 TV 시장의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북미 TV 시장에서 올해 5월까지 금액기준 34.1%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65인치 이상 TV 시장 점유율은 43.6%, UHD(초고해상도) TV 점유율은 53.5%로 대형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美서 삼성 '액티브워시' 호평 잇따라

컨슈퍼리포트 추천제품 2위

삼성전자의 세탁기 '액티브워시'가 미국시장 출시 두 달 만에 컨슈머리포트의 고효율 전자동 세탁기 부문 평가에서 추천제품 2위에 올랐다.

1위 역시 삼성 제품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성 전자동 세탁기가 1, 2위를 휩쓸었다.

28일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WA52J8700AP 모델의 평가점수는 최상위권으로 물 효율, 용량, 진동 항목에서 '최고'를 받았다. 세탁성능, 에너지효율, 소음항목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추천제품 상위 5개 모델 중 삼성 제품이 4개를 차지했다.

리뷰드닷컴에는 "지금껏 보아온 최고의 세탁 혁신 중 하나다. 몇 년간 본 세탁기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글이 실렸다.

리뷰드닷컴은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도 선정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현대차 브랜드 캠페인 '메시지 투 스페이스' 동상

영상기법·직접광고·옥외광고 등 3개 부문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메시지 투 스페이스'가 세계 광고 축제 칸 라이언즈에서 3개의 동상을 수상했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칸에서 열렸다. 현대차의 '메시지 투 스페이스'는 영상기법, 직접 광고, 옥외 광고 등 3개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로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작인 '메시지 투 스페이스'는 우주 비행사인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네시스를 활용해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초대형 메시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미국 네바다주 사막 '델라마 드라이 레이크'에서 제네시스 11대를 주행해 초대형 타이어 트랙 이미지로 딸이 직접 쓴 메시지를 사막 모래 위에 구현했다.

'메시지 투 스페이스'는 미국 3대 방송사인 NBC, CBS, ABC에서 소개됐고 구글과 애드위크지에서 발표하는 4월 전세계 유투브 광고 영

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위성 사진. /현대차 제공

상물 중 조회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6500만 건이 넘는 유투브 영상 조회수를 기록해 현대차 홍보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SKB 'B 인터넷' 소비자 만족도 으뜸

한국표준協 품질 조사

SK브로드밴드의 'B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표준협회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KS-SQI를 조사한 결과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B 인터넷'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장기우수고객 대상 고객보상 프로그램인 'B 타민' 서비스의 고객 규모를 46만으로 전년대비 2배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혜택도 고객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로 리뉴얼 했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왼쪽)가 백수현 한국표준협회장(오른쪽)으로부터 KS-SQI 1위 수상 인증패를 수상하고 있다.

고객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회사 업무에 적용하는 고객자문위원회 3기를 올해 4월에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객자문위원회 3기는 유선 서비스 AS 처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하고 디테일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향후 기가인터넷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SK브로드밴드의 고객가치 최우선 경영 실천은 대외기관으로부터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사전적 이용자 보호활동, 민원처리 실적 등 8개 항목에 통신사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평가해 발표했다. 국내 통신업체 중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만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기자 ysw@

www.ilovenature.co.kr

뿌리면 끝!

천연 대나무 숯으로 풍성하게!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

왜 천연 대나무 숯인가?
일반 숯에 비해 10배 이상 고운
대나무 숯 미립자의 원적외선과 우수한
통기성이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왜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인가?

일시 모발 도포제 조성물 국내 특허

- 자연스러운 뿌리는 가발로 탈모고민 해결!
- 방수코팅되어 물이나 땀에도 안심!
-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대나무 숯 함유! (천연 숯 증모제 조성물 특허 제10-1183526호)
- 5~10초면 원하는 헤어스타일 완성!
- 약 200회 분사가 가능한 용량!
- 4가지 컬러로 다양한 헤어 컬러 연출!

남성용

자연스러운 흑색 진한 갈색

여성용

갈색 밝은 갈색

*소비자가격 : 2만원

| 제품 구성 세븐에이트 흑채 60g 3개(동일 컬러) + 자연체감 멘솔 헤어클리닉 샴푸(300ml) 45,000원 | 제품 구입 및 상담 080-661-4949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4-00565
상호명 : 동성제약(주) | 대표자 : 이양구

균형 탄탄 고속주행… 코너링, 레이싱카 수준

|시승기 뉴 미니 JCW|

미니 역사상 최강 터보엔진 탑재 제로백 6.1초·빗길 제동력 일품

서킷 위를 달리고 있는 뉴 미니 JCW.

비가 왔고 바람도 제법 거셌다. 하지만 뉴 MINI(미니) JCW는 미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엔진인 2.0ℓ 4기통 트윈파워 터보엔진을 탑재한 모델답게 최고 출력 231마력, 최대토크 32.7kg·m의 성능을 거침없이 발휘했다.

이는 이전 미니 JCW모델에 비해 출력은 9%, 토크는 23% 향상된 수치다. 연비도 향상됐다. 이차의 공인 복합연비는 11.9km/ℓ(도심 10.9km/ℓ, 고속 13.5km/ℓ)로 이전 모델보다 3% 향상됐다.

특히 고속 주행에서의 갑작스런 핸들 조작에도 차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매끄러운 코너링으로 이어져 레이싱 카 못지 않은 성능을 느낄 수 있었다. 차에 장착된 스포츠 서스펜션과 자동 변속기는 주행감각을 돋보이게 했다.

지난 26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미니 JCW를 타고 2.6km 길이의 트랙을 달렸다.

650m 거리의 직선 트랙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시트에 밀착됐다. 32.7kg·m의 묵직한 토크감이 느껴지며 차는 순식간에 시속 150km를 넘어섰다.

직선코스 후 이어진 곡선 코스에서는 차의 감속을 최소화 시키며 속도를 이어갔다. 이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음이 생기며 스키드마크를 만들어냈다.

미끄러운 빗길에서도 제동력을 발휘하는 JCW전용 고정 캘리퍼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레이싱 주행감각을 한층 더 돋웠다. 이 차의 최고속도는 246km/h이며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6.1초다.

이날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뉴 미니 JCW의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도 참여해봤다.

전문 드라이버는 한층 더 과감해진 질주와 거침없는 핸들링 조작을 통해 차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다. 3분간의 짧은 시승이었지만 강력한 주행성능은 마치 레이싱 카에 탑승하고 있는 착각을 들게 했다.

차량 색상은 칠리레드, 레벨 그린을 포함해 총 4가지가 있다. 가격은 4890만원에 책정됐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이재일 포스코ICT 상무(왼쪽)와 최상구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판매사업부장이 MOU 체결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포스코ICT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MOU

현대자동차는 지난 26일 포스코ICT와 친환경차 공용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과 달리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공용시설에 충전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일반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차는 이번 MOU 체결로 올해 안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에 120기 가량의 충전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포스코ICT는 충전기 운영 및 유지·관리와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등을 담당한다.

양사는 포스코ICT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180여개의 충전시설과 연내 구축 예정인 120여개의 추가 충전시설도 현대차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올해 안에 직영 서비스센터, 출고센터, 대리점, 블루핸즈 등에 총 121기의 충전 시설을 구축한다.

향후 전국 각 지점과 대리점, 시승센터, 블루핸즈 등 2200여개 전 사업장에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LG화학, 세계 첫 스마트워치용 육각형 배터리 개발

사각형보다 용량 25% 커져 사용시간 최대 4시간 늘어나

LG화학이 개발한 스마트워치용 헥사곤(육각형) 배터리. /LG화학 제공

LG화학은 스마트워치용 헥사곤(Hexagon) 배터리를 개발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헥사곤 배터리는 기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제품에 비해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육각 형태다.

사각형 제품에 비해 용량이 25% 이상 커져 스마트워치에 탑재하면 사용 가능 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4시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글로벌 IT(정보기술) 업체와 원형 스마트워치용 배터리 개발 기술 협력을 해 왔다. 연내 헥사곤 배터리를 이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스마트워치가 오는 2016년 전체 소비자 손목착용 기기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한 뒤 2020년에는 1억대 이상 출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LG화학은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원형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헥사곤 배터리를 통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스텝 배터리와 커브 배터리, 와이어 배터리에 이어 최근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라운드형과 헥사곤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면서 2013년 이후에만 글로벌 고객사 10여곳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LG화학은 L자형과 가운데 구멍이 뚫린 ㅁ자형 등의 신제품도 수년 내 양산할 계획이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키워가는 것"이라며 "고객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혁신 제품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2018년 소형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로비음악회' 성료 박삼구 회장 등 200명 참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6월 문화가 있는 날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오후 6시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강현진 바이올리니스트 , 강효정 첼리스트, 김진무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이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러브 어페어, 시네마 천국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OST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다.

이날 로비음악회에는 시민들과 함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용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부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용기기자

아시아나항공 '메르스 침체' 전통시장 살리기 앞장

가족과 '강화 풍물시장' 방문

'전통시장 나들이'행사에 참석한 임직원 가족이 인천시 강화읍 강화 풍물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전통 시장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50여명은 전날 가족들과 인천시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 풍물시장을 찾아 나물, 견과류, 수산물 등을 구매하고 근방에 위치한 고려궁지를 관광했다.

행사에 참여한 박연주 아시아나항공 통제지원팀 과장은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전통시장을 보여주고 싶어도 막상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좋은 취지로 오게 돼 보람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한 천안 아우내장과 근처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8월에는 경기도 서인동 안성장과 안성맞춤 유기박물관을 방문해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석제 아시아나항공 사회공헌팀장은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모토에 맞게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160여명 줄세운 '애플워치'… 완판 행진

오픈 전부터 대기자 장사진… 스마트워치 시장 압도적

애플의 첫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어S'와 LG전자의 'LG워치 어베인LTE'의 인기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28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애플 공식 대리점인 프리스비의 직원은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라며 "애플워치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애플의 애플워치 판매 첫 날부터 예고됐다. 이번에도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26일 애플워치를 구입하기 위해 서울 명동 프리스비 매장에는 160여명의 대기자가 줄을 섰다. 서울 여의도 IFC몰 프리스비 매장에도 140여명의 구매행렬이 이어졌다.

애플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워치 출시 당시에는 이같은 구매 행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의도 IFC몰 프리스비 매장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상황에서 이같은 반응은 대박"이라며 "140여명 정도가 제품 구매를 위해 오픈 전부터 줄을 섰고, 처음 입고된 제품은 물론 추가 입고된 제품도 완판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IT 업체들도 흥행이 예

상되는 애플워치 출시에 맞춰 전용 앱을 출시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오위즈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음악포털 벅스는 애플워치 발매일 하루전날 iOS용 앱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애플워치를 지원하는 벅스 앱의 메뉴 구성은 총 3가지다.

KT뮤직도 음악서비스 '지니'를 통해 '지니 스포츠' 기능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오 역시 카카오톡과 최근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카카오택시를 애플워치용 앱으로 선보였다.

카카오톡은 새로운 메시지 확인, 간편답장, 이모티콘 전송, 음성인식 입력 지원, 핸드오프(hand-off) 기능을 탑재했다. 최근 기사 회원 수가 8만명을 돌파, 누적콜은 220만건을 넘어선 카카오택시 앱은 스마트폰으로 택시 호출 이후 차량 예약 완료·실패 여부 확인, 기사님 메시지 알람 확인, 택시정보 (차량번호·기사님 정보 등) 확인, 도착 시간 확인 (5분·2분 뒤 등)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24일 출시한 '기어S'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 탑재 논란으로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동사의 요구 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사들은 "삼성전자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에 미달돼서라고 들었다"며 서로 떠 넘기기식 해명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디자인과 하드웨어를 떠나 모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제품을 출시한 애플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20만원대 알뜰폰 '마그나' 출시

국내 실속파 소비자 공략

LG전자는 20만원대 보급형 3G 스마트폰 'LG 마그나(Magna)'를 알뜰폰 사업자(MVNO)용으로 국내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LG전자 베스트샵 및 전국 알뜰폰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500만명을 돌파했다.

LG 마그나는 부드러운 곡면 디자인의 5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세련된 곡선미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또, 터치 센서와 LCD를 통합한 '인셀터치(In-cell Touch)'기술을 적용해 터치 시 반응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셀피 촬영을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해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와 G 시리즈 대표 UX인 '제스처 샷'을 탑재했다. 제

스처 샷은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가 주먹을 쥐면 3초 후 자동으로 사진이 촬영되는 기능이다.

이 제품은 동급 최대 수준인 2610mAh의 대용량 탈착식 배터리를 탑재했다. 화이트와 티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출고가는 26만4000원이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보급형 제품에 대한 수요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보급형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국내 실속파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기자 euni71@

SKT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500만 돌파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전 세계 144개국에서 국내 최저 일 9000원(부가세 별도)에 데이터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OnePass)'의 누적 이용자수가 출시 4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1년 6월 업계 최초로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기간형'과 'T로밍 원패스 프리미엄' 등을 출시하며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로밍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 중 모바일 메신저·SNS·소용량 콘텐츠 이용 비중이 높은 만 24세 이하의 고객과 만 65세 이상의 실버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 5000원(부가세 별도)의 'T로밍 팅 플러스/실버 무한톡' 요금제를 선보였다.

더불어 해외여행을 떠나는 지인과 가족에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선물할 수 있는 'T로밍 카드' 7종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누적 이용자 5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고객이 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로 나만의 T로밍카드를 제작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및 SK텔레콤 로밍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로밍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정기자

KT, 올레TV-카카오톡 연동 서비스

KT(회장 황창규)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모바일메신저에 리모컨 기능을 적용한 '올레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톡과 올레tv를 연동하면 카카오톡으로 리모컨 기능, 콘텐츠 검색 및 원격 재생, 사진, 메시지 TV 전송, 이벤트 알림이 가능하다.

올레tv 카카오톡 플친의 대표 기능인 TV리모컨은 카카오톡 대화창 내 메시지 입력을 통해 TV 전원 온오프, 채널이동과 볼륨조절이 가능하다. 대화창에 검색어를 넣어 원하는 작품을 탐색할 수 있다.

다양한 맞춤 VOD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심심해', '우울해' 등 기분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작품을 소개한다.

밖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TV 화면에 원하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다.

올레 기가 UHD tv와 올레tv스마트 이용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을 TV로 전송할 수 있다.

KT는 카카오톡 플친 제휴를 기념해 올레tv와 친구을 맺은 이용자 전원에게 인기캐릭터 시니컬 토끼

이모티콘 12종을 준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올레tv를 연동한 가입자 1000명에게 TV포인트 1만원 권을 추첨해 제공한다.

또한 공식 SNS(카카오스토리·트위터· 페이스북)에 게재된 올레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런칭 이벤트를 공유한 1000명의 참여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준다.

/정문경기자 hm0108@

LGU+, 5G 주파수 효율 향상 기술개발 성공

LG유플러스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새로운 주파수 추가 없이 기존보다 많은 비트(Bit)를 변조해 전송하는 방식인 256QAM을 이용한 다운링크 3밴드 CA 기술로 390 Mbps 전송을 화웨이와 함께 상용화 장비를 이용해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다운링크 256QAM은 LTE 데이터 다운로드 시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QAM 방식을 기존의 64QAM(6비트 단위)에서 256QAM(8비트 단위)으로 늘리는 기술이다.

기존 3밴드CA 최대 속도가 300Mbps인데 반해 256QAM를 이용한 3밴드CA는 390Mbps로 속도가 향상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1GB 파일을 다운 받을 때 300Mbps의 속도로 27초가 걸렸지만, 다운링크 256QAM이 적용되면 21초로 다운로드 시간이 30%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최대 300Mbps를 제공하는 3밴드 CA 서비스에 이 기술을 적용해 390Mbps까지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를 이르면 12월부터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문경기자

신세계, T커머스 뒷문 입장 '꼼수'

시장성 보이자 승인사업에 지분인수로 뛰어들어
업계, 자본력 바탕 물량공세 등 시장 혼탁 우려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이 드림커머스 인수를 통해 T커머스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승인이 이뤄지는 사업이 단순 자본 원리로만 진행될 경우 지난해 납품 리베이트로 얼룩졌던 롯데홈쇼핑과 같은 비리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T커머스 채널 드림앤쇼핑을 운영하는 드림커머스와 지분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커머스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T커머스 사업자인 '드림커머스'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드림커머스 대주주 변경(인수)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를 뜻하는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다. TV와 리모컨만으로 상품정보부터 검색·구매·결제 등이 가능한 방식으로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이라고도 불린다.

국내 T커머스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10개 업체다. 지난 2005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TV홈쇼핑과 KTH와 아이디지털·SK브로드밴드·TV벼룩시장·드림커머스 등이 선정됐다.

그동안 이 업체들은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지만 디지털 방송환경 미성숙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TV 보급이 늘면서 시장 환경이 서서히 조성됐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T-커머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90억원에서 규모였던 T커머스 시장은 올해 2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된다. 2016년에는 7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신세계도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본인들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초기 시장인 T커머스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T커머스 업체들이 디지털TV 보급이 늘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T-커머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체들이 앞 다퉈 뛰어들고 있다. /KTH 제공

하지만 업계는 시장 성장 발판이 마련된 상황에서 신세계가 무리하게 사업을 키울 경우 시장이 혼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나 승인사업이 단순한 경제 논리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각종 비리로 구설수에 올랐던 롯데홈쇼핑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홈쇼핑 사업권이 없던 롯데는 지난 2007년 우리홈쇼핑의 지분 50.58%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얻으며 홈쇼핑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2008년 3067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7732억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다채널을 보유한 유통 강자의 이점을 이용해 납품비리를 일삼았고 결국 전(前) 신헌 대표가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최근에도 거짓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비리 사건은 정부의 승인 사업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예"라며 "겉으로는 롯데가 홈쇼핑 시장에 진출해 업계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은 혼탁해졌고 업체 간 경쟁만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홈쇼핑에 진출하면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중소기업을 키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롯데백화점에서 마트·온라인·편의점·홈쇼핑까지 이어지는 유통 체인을 만들어 사세를 확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쇼핑 사업에 처음 뛰어드는 업체들도 신세계와의 경쟁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유통 강자의 물량공세를 버틸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서다.

T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신세계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경쟁사로써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겠지만 결국 오버페이스하게 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세계가) 2005년 T커머스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사업성이 불투명해 승인신청도 하지 않더니 시장성이 보이는 이제 뛰어들면서 시장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월드몰 '블랙시즌오프' SPA 최대 60%할인 롯데자산개발(대표 김창권)이 운영하는 롯데월드몰은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최대 60% 세일 등 파격적 할인을 내건 블랙시즌오프를 7월 19일까지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SPA 대전에서는 캐나다 캐쥬얼 브랜드 '조프레쉬'와 '자라'를 최대 60%, 'H&M'의 남성·여성·키즈·액세서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월드몰 제공

편의점 매출, 담배 덕에 '나홀로' 고공행진

5월 매출 전년 比 31.5%↑

소비심리 위축에도 편의점 매출이 담뱃값 상승에 따른 담배 판매액 증가로 크게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세수 부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산업통산자원부가 공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자료에 따르면 5월 편의점 매출은 31.5% 늘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중 담뱃 등 기타 매출액은 전년동월보다 58.9%나 늘었다. 즉석·신선식품이 18.5%, 가공식품이 17.5%, 생활용품이 15.6%의 상승률을 보였다.

4월에도 담배 등 기타 매출은 53.3%나 늘며 편의점 매출이 28.3% 상승했다. 3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23.1% 올랐는데 담배 등 기타 매출은 46.4% 상승했다.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후 정부의 담배 반출량은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 등으로 인상 전인 12월 3억갑보다 1억갑 정도 밑돌았으나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100만갑, 5월 2억7000만갑 등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한편 편의점을 제외한 유통업체의 매출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5월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 백화점 매출은 3.1%,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할인행사 등으로 한우·닭고기·과일 등 식품 매출이 2.6%, 잡화 매출이 3.0% 가량 상승했다.

백화점에서는 일부 브랜드가 시즌오프 할인행사에 들어간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이 전년동월보다 14.0%, 여성캐주얼 등의 판매가 늘어난 의류는 2.8% 상승했다.

/김성현기자 minus@

롯데마트 '베리의 왕' 生 블랙커런트 판매

롯데마트가 대형마트 최초로 '블랙커런트'를 생과로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전점에서 충남 논산, 전남 장성에서 수확한 '생(生) 블랙커런트(300g 내외·1팩)'를 7900원에 판매한다.

블랙커런트는 유럽 북서부가 원산지인 과일로 항산화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비타민C가 대표적인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보다 각각 4배와 10배 가량 많아 '베리의 왕'이라 불린다. 주로 냉동된 상태로 수입돼 왔으나 최근 충남 논산, 전남 장성 등지에서 국산 재배에 성공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생과 상태의 '블랙커런트'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는 과일MD(상품기획자)가 지난해부터 직접 산지를 돌아다니며 사전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대형마트 최초로 생과 상태의 블랙커런트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U,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 한정판 텀블러 선봬

BGF리테일(회장 홍석조)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코카콜라와 손잡고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 한정판 텀블러'를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 텀블러는 '빈티지 텀블러' 2종과 '아이콘 텀블러' 1종,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CU에서 판매 중이다. 미국 대표 텀블러 제조사인 쿨키어의 코카콜라 라이선스 계약 상품으로 한정 수량이라 소장 가치가 높다.

빈티지 텀블러(8900원·340.2㎖)'는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를 사용한 캔 모양에 빈티지한 하트 모양 성조기가 새겨진 '빈티지텀블러 하트'와 대각선 패턴에 별이 돋보이는 '빈티지텀블러 스타' 2종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순하리, 4000만병 돌파

롯데주류, 출시 100일 성인 1인당 2병씩 소비

'순하리'가 출시 100일 만에 성인 1인당 2병씩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순하리'가 지난 3월 20일 출시 이후 100일 만에 누적 판매 4000만 병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대 이상 인구를 2000만 명이라고 추정할 때 성인 1인당 두병씩 소비한 수치다. 잠실 롯데월드 타워(완공시 555m)를 1만 5000개 세운 높이의 합과도 같다. 또 서울과 부산을(약 400km)을 약 10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소주병 약 21.5cm 기준)

소주 베이스 칵테일 시장을 열고 있는 순하리는 유자과즙과 유자향이 첨가된 알코올 도수 14도 제품이다. 유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롯데주류 제공

SNS를 통해 제품과 맛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주류업계의 '허니버터칩'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회사 측은 순하리의 성공 요인으로 기획부터 제품 출시까지 고객들의 니즈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순하리의 패키지는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다. 롯데주류 측은 소주와 같은 부담 없는 가격에 풍부한 과실의 맛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운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가격이 올라가 당초 기획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 '소주병'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롯데주류는 전국 생산을 위한 원료 수급에 들어갔다. 생산 공장도 강릉공장에서 경산·군산으로 늘리면서 5월 20일부터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순하리의 출시로 소주 시장의 경쟁구도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왔다. 또 경쟁사들이 유사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순하리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만든 그 시작에 있는 만큼 제품 퀄리티 유지와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준지, 2016 봄·여름 파리컬렉션 개최 제일모직(패션부문 대표 윤주화)의 남성복 브랜드 준지가 지난 26일 오후 1시(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에서 2016년 봄·여름 시즌 파리컬렉션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준지는 지난 2007년 가을부터 매년 파리컬렉션에 진출했으며 17번째인 이번 컬렉션에서는 총 36착장의 의상을 선보였다. /제일모직 제공

음료업계 "과일도 섞어야 제 맛"

망고+자몽, 딸기+바나나 등 과일 혼합 제품 출시 봇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음료업계에 과일을 활용한 제품이 대거 출시됐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과일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음료시장에선 조화가 잘 맞는 두 가지 과일을 혼합한 과일 믹스 제품이 눈에 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혼합과즙 냉장주스 '믹스앤매치25' 2종을 판매 중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편의점 GS25가 공동 기획·개발한 제품으로 오렌지·자몽, 망고·자몽 등 두 가지 과즙을 섞었다. 과일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85℃ 이상 온도에서 15초간 살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최근 오렌지와 자몽을 활용한 '오자몽주스', 딸기와 바나나를 섞은 '딸기바나나주스'를 출시했다. 오자몽주스는 다이어트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 오렌지와 생 자몽을 통째로 갈아 넣어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렸다. 딸기바나나 주스는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와 칼륨 함유량이 높은 바나나를 사용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KFC는 '유자몽에이드'를 선보였다. 유자몽에이드는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유자와 자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철 웰빙음료다. 20~3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유자와 자몽 특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배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자연원은 '두번 엄선한 딸기 바나나 믹스'를 선보였다.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냉동후 자연 해동시켜 생과 본연의 맛과 영양을 느낄 수 있다. 딸기와 바나나의 비율을 50%씩 배합해 스무디로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의 균형을 살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자몽·망고 등 수입과일의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과일 믹스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일 과일 재료로 만든 제품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올 여름 잇백 '마이크로·로고리스'

명품 핸드백 브랜드 '델보'와 '칼 라거펠트'가 새로운 잇 백으로 뜨고 있다. 올 여름 백 트렌드는 '마이크로'와 '로고리스'가 대세다.

28일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에 따르면 올들어 명품관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용 명품 핸드백 브랜드는 델보와 칼 라거펠트다.

델보는 18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벨기에의 에르메스'라고 불린다. 지난 2013년 10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 국내 1호점이 오픈됐으며 6월 23일 무역센터점에 2호점이 들어섰다. 로고가 겉에 드러나지 않는 로고리스 명품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현재 월평균매출이 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칼 라거펠트 패션 매장은 5월 현대백화점에 국내 처음으로 오픈했다. 매출이 월 목표 대비 20%를 웃돌 정도로 인기몰이중이다.

칼 라거펠트는 프랑스 고급 브랜드 '샤넬'의 수석디자이너로, 샤넬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84년 현재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론칭해 현재 유럽 대표 최고급 백화점인 영국 해롯과 프랑스 라파예트 백화점을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로드숍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진출했다.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 명품관에서는 올 여름 백 트렌드로 미니백의 진화 버전인 마이크로백과 로고를 드러내지 않고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갤러리아 명품관 펜디가 도시여성을 겨냥해 선보인 바이-더-웨이 백의 마이크로사이즈인 '미니 바이더웨이 백(사진)'은 화려한 색감과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펜디의 가방 상품군 매출은 작년동기에 비해 80% 신장했다.

갤러리아명품관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로고가 두드러지는 '시그니처백'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로고없이 간단한 디자인의 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액세서리 효과가 있고 편하게 매치시킬 수 있는 미니 크로스백과 클러치 등 마이크로백을 찾는 고객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OB '일일 도우미' 소비 촉진 캠페인 나섰다

오비맥주는 본사 임직원이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침체돼 울상을 짓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일일 도우미'로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브라질 출신 김도훈(본명 프레데리코 프레이레)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 200여 명은 26일 오후 강남역 일대 160여 개 업소를 방문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임직원들은 '카스 블루데이'라는 캠페인 명 아래 카스 블루 티셔츠를 입고 4인 1조로 팀을 이뤄 소비자 홍보와 음식 서빙, 유리창 닦기, 실내 청소 등 업소 지원 활동을 하며 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인들의 아픔을 달래고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지역 상인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옥션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

공짜 행사상품·음표쿠폰 등

옥션(대표 변광윤)은 내달 12일까지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배송비 2500원만 내면 공짜로 행사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울트라 특가' 코너가 준비됐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에 코너가 오픈되며 총 10일간 5만1200개의 상품이 선착순 판매된다. 26일에는 '황신혜의 오로디아' 브랜드 속옷(브래지어와 팬티 중 1개 선택) 1000개와 '미래생활 각티슈'(6개입) 4000개가 준비됐다. 이어 29일 '샤오미 USB 선풍기'(1000개), '삼양라면 컵라면(소 6개입)'(5000개), 30일 '네파 쿨토시'(500개), '물먹는하마(3개입)'(5000개) 등이 준비됐다.

옥션 모바일에서는 음료 e쿠폰을 100원에 판매한다. 12일까지 옥션 모바일 구매 시 3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증정한다. 1 ID당 1회 발급 받을 수 있고 1만원 이상 구매할 때 사용가능하며 최대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車에선 '스텔스'에 핸드폰 맡겨 두세요

슈피겐, 차량용 거치대 출시 6인치 태블릿기기 호환 가능

슈피겐코리아(대표 김대영)는 운전자 편의성을 높인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스텔스'(사진)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아이폰 6플러스와 갤럭시 노트4 등 최대 6인치의 대화면 패블릿 기기까지 호환 가능한 거치대로 운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기만 하면 장착되는 클립형 방식을 채택해 탈착이 쉽고 간편하다. 각도는 제품 하단부에 위치한 두 개의 홈을 통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또 제품은 강력한 접착력과 곡면의 대시보드에서 거치대를 빈틈없이 부착할 수 있도록 제품 바닥과 접착 겔을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했다. 운전자의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제품의 높이를 낮게 설계한 점도 강점이다. 가격은 2만3900원.

한편 슈피겐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8일까지 슈피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스텔스 소문내자!' 이벤트를 연다. 자사 페이스북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스텔스, 슈피겐 쇼핑몰 20% 할인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10일 발표한다. /양성운기자 ysw@

상명대학교는 7월 8일까지 2015 하계 해외봉사활동을 한다. /상명대 제공

상명대, 카자흐서 한국문화 알린다

키르키스스탄·캄보디아 등서 내달 8일까지 해외 봉사활동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7월 8일까지 카자흐스탄·키르키스스탄·캄보디아에서 '2015 하계 해외봉사활동'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90여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키르키스스탄)와 캄보디아로 나눠 교육봉사·재능기부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각 국에 전파하게 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키르키스스탄 비쉬켁 한국교육원의 수강희망자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태권도·사물놀이·취미교육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반티 민체이대학·캄보디아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실·전통교실·체육·음악교실 등을 진행해 두 학교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상명대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참된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매 학기 방학 중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키르키스스탄·캄보디아 현지에서 대학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복현명기자 hmbok@

서울여대 이기한 교수 국토교통 우수연구자상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컴퓨터학과 이기한(사진) 교수가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 우수연구자상은 국토교통 R&D 성과의 실용화를 통해 성과확산·산업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교통물류 연구사업의 SMART Highway 사업(무정차·다차로 기반의 SMART 영업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이어 지난 2013년 외곽순환 고속도로 퇴계원 지점 공용도로에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실용화에 성공하면서 남해 2지선 서부산 요금소에 실제 구축해 기술을 상용화 한 공적을 인정 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식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린 '2015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진행됐다. /복현명기자

손가락 저림… 척골신경압박증후군?

잘못된 자세·반복적 운동 원인 신경압박 심하면 근육 마비도

최근 손이 저리거나 갑작스런 통증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남성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증상은 흔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손목 관절 이상 질환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남성들도 팔꿈치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고3인 이군(18)은 최근 계속되는 손가락 저림 현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수업시간 필기를 하는 것도 힘들고, 점심시간 젓가락질 하는 것조차 어려워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 이군은 MRI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척골신경압박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체육시간 무리한 운동과책상에 엎드려 장시간 팔을 베고 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팔꿈치 신경이 압박되면서 생긴 증상이라는 것이다.

동탄시티병원 신재흥원장이 진료하고 있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신재흥 원장은 "척골신경압박증후군은 장시간 동안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잠을 잘 때 팔베개를 하고 자는 습관 등으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척골신경압박증후군은 팔꿈치에 있는 척골 신경 압력이 증가해 팔꿈치의 안쪽에서 뼈의 압박이 생기는 질환이다. 외상을 입거나 관절염으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서서히 좁아져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천적으로 근육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지나치게 운동해서 근육을 너무 키운 사람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이 저리는 증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순환 장애나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척골신경압박증후군은 현대인들이 빈번하게 겪는 질환 중 하나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3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 외부적인 충격 등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발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가는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근육 마비 증상도 나타난다. 손가락들 사이의 근육이 말라서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져서 마치 갈퀴 모양으로 변하기도 한다.

신원장은 "초기 증상의 경우 팔꿈치 구부리는 동작을 줄이고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를 찾아 전기 근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등으로 신경의 손상 부위와 정도,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뮤지컬·뷰티 컨설팅… 스탠포드 호텔서 꿀맛 휴가

내달 1~25일 뮤지컬·레이드스 핫 서머 패키지 선봬

스탠포드 호텔이 뮤지컬 패키지와 여성들을 위한 여름 패키지를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스탠포드 호텔은 신시컴퍼니와 제휴해 매달 새로운 뮤지컬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스탠포드 인 시카고'다.

패키지 A는 더블 객실 1박, 조식 2인, 국립극장 시카고 뮤지컬(R석 19:30 5객실 한정판매)을 즐길 수 있다. 패키지 B는 주니어 스위트룸 1박과 조식 2인, 국립극장 시카고 뮤지컬(R석 19:30 5객실 한정판매)로 구성됐다. 금액은 18만~22만원(세금 10% 별도)이다.

뮤지컬 시카고는 1975년 세계 초연 이후 지금까지 8500회 이상 공연됐으며 33개국, 423개 도시에서 2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은 '레이디스 핫 서머' 패키지를 준비했다. 객실(더블 또는 주니어스위트) 조식, 수영장, 황민영에디터와 전문뷰티 MD가 큐레이션한 화장품으로 구성된 글로시박스로 구성됐다. 가격은 18만~22만원(세금 10% 별도)이다.

호텔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유를 스탠포드 호텔에서 누리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예약 02-6016-0001

강강술래, 무더위 날려 줄 힐링공연 선물

'아리랑' '드로잉쇼' 티켓 이달 30일까지 무료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달 30일까지 '오리지널 드로잉쇼'와 '아리랑' 티켓(1인 2매)을 선물하는 힐링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복 70주년 기념 대형 창작뮤지컬 '아리랑'은 1000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 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한 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을 담고 있다. 송수익 역에 서범석과 안재

욱이, 양치성 역엔 김우형과 카이가 더블 캐스팅됐다.

LG아트센터에서 내달 16일부터 공연하다.

'오리지널 드로잉쇼'는 세계 최초의 미술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이 관객 앞에서 순식간에 이뤄지며 상상 못할 미술의 특수효과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물한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수수께끼 같은 빛드로잉과 비트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한 핑거드로잉을 비롯해 플라워드로잉, 야광드로잉 등 대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정동 경향아트힐에서 공연된다.

공연 티켓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전달한다.

"선배들 통해 욕심 버리는 법 배웠죠"

영화 '소수의견' 윤계상

지난 25일 개봉한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은 탄탄한 이야기와 함께 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인상적인 영화다. 이 작품은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두 살인 사건을 통해 한국 사법체계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유해진, 이경영, 권해효, 김의성, 장광 등 충무로의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열연했다. 그러나 이들의 중심에는 의외의 얼굴이 있다. 바로 배우 윤계상(36)이다.

1세대 아이돌이었던 지오디에서 탈퇴한 뒤 2004년 '발레 교습소'로 스크린에 데뷔한 윤계상은 이후 '6년째 연애중' '비스티 보이즈'에 출연해 기본기 등 배우 경험을 착실히 쌓아왔다.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벗고 배우가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풍산개'를 마친 뒤 윤계상은 처음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소수의견'과 만났다.

윤계상이 '소수의견'의 시나리오를 받고 촬영에 들어간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처음으로 접한 사회 고발 작품이다. 그러나 주제보다는 시나리오에 담긴 이야기와 메시지에 끌렸다. 김성제 감독 또한 윤계상에게서 영화 속 주인공 윤진원 변호사의 모습을 발견했다. "윤진원 변호사는 야망과 열정을 갖고 재판에 뛰어들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맞서게 된 비리가 생각보다 세다 보니 억울하고 열 받아서 재판 전면에 나서게 되죠. 저도 감독님도 그런 부분은 비슷해요. 저도 정말 '배우'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윤계상은 '소수의견'에 대해 "너무나 큰 기회이면서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연기 면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중심이 되는 만큼 연기의 한계가 다 들통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윤계상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윤진원이 되고자 했다.

배우 한계 부딪혔을 때 선택한 영화 기회이자 위기라는 생각으로 참여 선배 배우들과 호흡… 큰 배움 얻어

선배들의 연기를 보고 느낀게 많았다. '풍산개'를 마친 뒤 배우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다. 유해진으로부터 '끊임없는 시도', 이경영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열정'을 배웠다. "선배 배우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연기 이야기 밖에 안 해요. 그걸 보면서 배우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에 급한 마음이 사라졌죠.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 성장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나에게 맞는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완성된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2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찍은 '레드카펫'은 이미 지난해 개봉돼 관객과 만났다. 윤계상은 "1년 반 전에 편집본을 봤을 때 완성된 영화가 정말 좋아서 당연히 개봉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수를 지지하는 이들의 이야기라 모든 배우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인 영화"라며 뒤늦은 개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소수의견'과 '레드카펫'을 거치면서 배우로서의 강박을 떨쳐낸 윤계상은 다음 작품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생각이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제대로 액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선택한 JTBC 새 금토드라마 '라스트'다. 그는 "이제는 연기가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좋은 걸 열심히 하고 싶다"며 웃었다. 강박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빅뱅 다음 신곡은 '이프 유' '맨정신'

감성·애잔함-경쾌한 섬머송

그룹 빅뱅이 다음달 1일 발표할 신곡 제목을 공개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빅뱅의 '메이드 시리즈' 세 번째 싱글 제목이 '이프 유(if you)'와 '맨정신'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프 유'와 '맨정신'의 포스터를 각각 27일 자정과 28일 자정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프 유'는 지드래곤이 작사·작곡했으며 빅뱅의 '몬스터'를 작곡한 PK와 태양의 솔로곡 '눈, 코, 입'을 테디와 공동 작곡한 디 피(Dee.P)가 작곡과 편곡에 참여했다.

'이프 유'의 포스터는 핑크색 파스텔 계열로 감성적이고 애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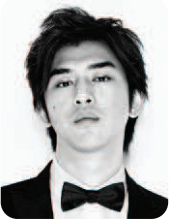
'맨정신'은 푸른 잔디밭에서 민트색 수트를 입고 뛰어가는 멤버들의 뒷모습을 담은 유쾌한 포스터가 인상적이다. 테디와 지드래곤, 탑이 작사에 참여했으며 초이스37이 테디, 지드래곤과 함께 작곡했다. 계절의 분위기를 잘 살린 섬머송이다.

한편 빅뱅은 오는 30일 오후 11시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빅뱅 카운트다운 라이브 메이드 시리즈 중간 점검' 이벤트를 개최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

star bag

하지원 손잡고 국내 진출

대만의 인기 배우 **진백림**이 하지원의 에이전시 BM+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예계에 진출한다.

소속사 측은 "진백림이 조만간 한중 합작의 훌륭한 작품들과 연예 활동을 통해 한국 팬에게 자주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민·변요한과 연기 호흡

배우 **정유미**가 SBS 창사 25주년 특집극 '육룡이 나르샤'에 출연한다.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 기틀을 세운 철혈군주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여섯 인물의 이야기를 그리는 팩션 사극이다. 정유미는 연희 역을 맡아 김명민, 변요한과 호흡을 맞춘다.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변신

신예 배우 **김윤혜**가 가수 정준일의 신곡 '너에게'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이 됐다.

김윤혜는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부근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남자 주인공으로는 배우 변요한이 출연했다. '너에게' 뮤직비디오는 다음달 1일 정오에 공개된다.

그룹 버전 앨범 커버 공개

걸그룹 **걸스데이**가 정규 2집 앨범 '러브'의 그룹 버전 재킷을 공개했다.

2차선 도로 위에서 하얀 드레스에 검정색 포인트가 들어간 드레스를 입은 멤버들의 모습을 담았다. 걸스데이는 다음달 6일 오후 KBS월드체육관 제1체육관에서 정규 2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연다.

‘틀’을 깬 상상력… 픽사의 제대로 된 ‘부활’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머릿속의 감정 의인화로 설득력 있게 제시
감정·행동·꿈·무의식 등 흥미롭게 풀어내

■ 인사이드 아웃

픽사 애니메이션은 작은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자신들만의 세상을 꾸미고 살아가는 장난감, 밤마다 벽장을 통해 찾아오는 몬스터들의 세계, 요리를 하는 쥐와 풍선으로 날아가는 집까지 픽사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그 기발한 상상력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따뜻함이 있다. 잊고 지낸 순수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마법 같은 순간. 그것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기다린다.

‘인사이드 아웃’은 최근 다소 실망스러운 작품을 보여준 픽사가 지난 한 해를 거르고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이다. 픽사 특유의 상상력과 감성이 변함없이 녹아있다.

주인공부터 그렇다. 11세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에 있는 다섯 가지 감정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기쁨, 슬픔, 버럭, 분노, 소심으로 이름 붙여진 이들 감정은 라일리가 겪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영화는 미네소타에서 평온한 삶을 살던 라일리가 부모님과 함께 멀고 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오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을 이들 다섯 가지 감정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한다는 것이 다소 허무맹랑한 설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심리학과 인지과학 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설정으로 설득력을 제시한다. 감정과 행동, 기억과 잠재의식, 꿈과 무의식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소들을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구현한 장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다. 영화 곳곳에 담겨 있는 픽사 특유의 매력적인 캐릭터와 유머도 즐거운 볼거리다.

물론 ‘인사이드 아웃’은 단순히 상상력만 전시하지 않는다. 11세 소녀의 감정이 주인공이지만 영화는 어느 순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관객의 마음을 건드린다. 라일리의 상상 속 친구인 빙봉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그렇다. ‘토이 스토리3’의 엔딩과 ‘업’의 오프닝을 잊지 못하는 팬이라면 두 손 들고 반길 수밖에 없는 ‘인사이드 아웃’의 하이라이트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던 영화는 다시 감정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을 향해 간다. 우리가 지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 그것이 곧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기다려온 ‘진짜’ 픽사 애니메이션이 돌아왔다. 전체 관람가. 7월 9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단독 요트 세계 일주자의 사연

◆ MBC ‘다큐스페셜’ 오후 11시 15분

4만1900㎞, 5016시간, 209일간의 여정. 이것은 2014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최초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 성공자인 김승진(53)씨가 세운 기록이다. 그의 세계 일주 성공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이고 아시아에서 네 번째,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다. 그가 전 재산을 털어 요트를 사고, 목숨을 건 도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무모하고도 용감한 도전의 이유를 들어본다. /정리=하희철기자

◆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5분

여심을 녹이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케이윌과 옴므의 이현, 창민.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걸그룹 AOA의 초아와 민아가 고민상담에 나선다.

◆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오후 11시 15분

‘자유여인’ 배우 황석정과 길해연이 힐링캠프에 찾아온다. 유혹에 일가견이 있다는 황석정은 숨겨놓은 춤 실력을 공개하면서 ‘남자 유혹 100% 비법’을 공개한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40분

그룹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를 위한 요리대결이 펼쳐진다. 케이윌을 능가하는 역대급 ‘쓰레기통’ 냉장고가 등장한다. 부실한 속 재료에 셰프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61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5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6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3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너를 기억해 (3회)	00 화정 (23회)	00 상류사회 (7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마스크 오브 조로>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1차 세계대전 어느 병사들의 이야기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15 MBC 뉴스 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07회) (재)	00 삼시세끼 정선편 (7회) (재)	00 올리브쇼 2015 (2회)	00 온천 원숭이, 스노우 몽키		◆ 해외야구 02:07 텍사스 vs 토론토 02:10 LAD vs 마이애미 02:35 애틀랜타 vs 피츠버그
19시	55 JTBC 뉴스룸	40 다녀오겠습니다 (2회)	0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7회) 25 노 오븐 디저트 2 (3회)	00 북한을 가다: 김정은의 나라	4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9회)	00 오늘 뭐 먹지? (75·74회)	00 계곡을 잇는 비행 케이블 마을의 여름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3회)	40 신분을 숨겨라 (4회) (재)	00 한식대첩 3 (6회)	00 빛의 물리학 5부		
22시			30 맵스 (1회)	00 프리미엄 와일드 <와일드 콜롬비아>3부	00 사이비	
23시	00 비정상회담 (52회)	00 신분을 숨겨라 (5회)	35 올리브쇼 미니 NEW (9·26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 삼풍 참사의 진실		
24시	30 화이트 스완 (5회)	20 삼시세끼 정선편 (7회) (재)	00 샘킴의 함께쿠킹 (17·12회) 30 2015 테이스티로드 (20회)	00 <극한직업>상황버섯 채취	20 사대명포 2	

불혹의 파워… 프로야구 '최고령 전성시대'

손민한·임창용·이호준 등 베테랑 선수들 기록 행진

손민한

이호준

임창용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베테랑들이 '최고령' 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다. 나이가 기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야구계에서 은퇴는커녕 전성기 못지 않은 실력을 보이는 베테랑들의 아름다운 선전이 유독 많은 시즌이다.

◆ NC 손민한, 사상 첫 불혹 넘은 10승 투수

지난 24일 창원 마산구장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령 선발투수 대결이 펼쳐졌다. NC다이노스의 손민한(40세 6개월 22일)과 KIA 타이거즈의 서재응(38세 1개월)의 대결이었다. 두 사람의 나이 합계는 78세 7개월 22일이다. 2008년 청주구장에서 열린 KIA 리마(만 35세 8개월 26일)와 한화 이글스 송진우(만 42세 4개월 9일)가 세운 종전 최고 기록인 78세 1개월 5일을 넘어섰다.

결과는 두 살 많은 손민한의 승리였다. 이날 5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팀의 8-1 승리를 이끌며 시즌 8승째, 개인통산 120승을 달성했다. 이로써 한국 프로야구에서 120승 고지를 밟은 13번째 투수가 됐다. 앞으로 2승만 더 추가한다면 사상 첫 불혹의 10승 투수가 된다.

전망은 밝다. 13경기에 나와 8승(4패) 방어율 3.80를 기록하고 있다. 에릭 해커와 함께 팀내 다승 공동 선두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19번째로 1700이닝을 채우는 등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 NC 이호준 , 최고령 타점왕

NC의 이호준은 지난 18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앞선 1회초 무사 2루에 정성곤의 초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지난달 30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 이후 19일 만에 터진 시즌 15호이자 개인 통산 300호 아치다. 한국프로야구 역대 8번째이다. 또한 39세 4개월 10일에 300홈런을 채워 박재홍(39세 26일)의 최고령 300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큰짐을 덜어낸 이호준은 올시즌 활약으로 한 가지 과제가 생겼다. 바로 최고령 타점왕이다.

이호준은 현재 71타점으로 이 부문 2위에 오른 상태다. 1위는 팀 동료인 에릭 테임즈로 1점 차에 불과하다. 지난 20일까지는 이호준이 선두였지만 잠시 주춤한 사이 테임즈가 역전했다. 하지만 테임즈는 21일 이후로 추가 타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 사이 이호준은 2타점을 추가해 다시 추격을 개시했다.

역대 KBO리그 최고령 타점왕은 2005년 현대 유니콘스의 외국인 타자로 활약했던 래리 서튼이다. 1970년생인 그는 당시 만 35세 나이로 리그 최다 102타점을 올렸다. 이호준이 올시즌 타점왕에 오른다면 토종 선수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다는 의미도 생긴다.

◆ 삼성 임창용, 최고령 구원왕

불혹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의 구원투수 임창용은 현재 NC의 임창민, KIA의 윤석민과 함께 15세이브로 이 부문 공동선두에 올랐다. 지난달은 등판한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6월 들어서는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평균자책점도 0.309로 지난달에 비해 올랐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다.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쟁자들 중 평균자책점은 가장 낮고 실점도 8개로 가장 적다. 또 피안타도 20개로 가장 적고 홈런은 아예 허용한 적이 없다. 사사구도 가장 적다. 5월까지 함께 선두를 다퉜던 넥센 히어로즈의 손승락도 잠시 부진에 빠졌지만 임창용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역대 최고령 구원왕도 과언은 아니다.

역대 한국프로야구 구원왕은 모두 33세 미만이었다. 1995년 선동열과 2003년 이상훈과 조웅천, 지난해 손승락이 만 32세에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만 39세의 임창용은 시속 150㎞에 근접한 빠른 공을 던지고, 시속 120㎞까지 구속을 낮춘 커브, 일본에서 연마한 포크볼을 구사하고 있어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로 통한다. 역대 최고령 구원왕을 기대해볼만한 이유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최나연, 악천후 속 2라운드 선두

36홀 최소타 기록
박인비는 컷 탈락

최나연(28·SK텔레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사진)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36홀 최소타 기록과 함께 대회 2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섰다.

최나연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 클럽(파71·7001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를 쓸어담고 보기 1개를 더해 8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이날 경기는 폭풍우가 부는 악조건 속에서 치러졌다. 그럼에도 최나연은 중간합계 13언더파 129타를 적어내 시즌 두 번째 우승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나연은 앞서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LPGA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을 예고한 바 있다.

최나연은 전반에 2타를 줄이며 샷 감각을 조율했다. 이어 후반에서는 맹타를 휘둘렀다. 10번홀부터 12번홀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았다.

또한 17번홀(파3)에서도 1타를 줄였으며 18번홀(파5)은 이글로 장식했다. 후반 9개홀에서만 무려 6타를 줄였다. 최나연은 이 홀에서 워터 해저드를 넘겨 그린을 직접 공략한 뒤 13m 거리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갤러리의 박수를 받았다.

최나연은 "이번 주 샷 감각이 좋아 자신이 있었지만 스코어가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중간 합계 1언더파 141타로 2014년 5월 에어버스 LPGA 클래식 이후 1년여만에 컷 탈락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韓 메이저리거 '무안타' 침묵

추신수, 토론토전서 고전
강정호는 득점에 그쳐

한국의 메이저리거들이 '무안타' 침묵을 이어갔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2경기 연속 무안타 기록이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도 0.230에서 0.225(262타수 59안타)로 낮아졌다.

처음 상대하게 된 토론토의 신예 좌완 투수 맷 보이드를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보이드의 5구째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3회초에도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2루수 앞 땅볼에 그쳤다.

5회초 로빈슨 치리노스의 솔로 홈런 이후 타석에 오른 추신수는 초구를 공략했다. 그러다 다시 2루수 앞 땅볼로 출루에 실패했다.

7회초 1사에서는 볼 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또 한 번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을 기록했다. 9회초 1사 3루에서는 교체된 투수 애런 루프에게 세 번째 삼진을 당하며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추신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는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토론토에 4-0으로 승리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같은 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1회말 왼쪽 팔꿈치에 공을 맞은 3번 앤드루 매커천을 대신해 대주자로 들어간 강정호는 이어진 스탈링 마르테의 좌전 안타와 페드로 알바레스의 우중월 2루타로 홈을 밟았다. 그러나 이후 네 차례의 공격 기회를 얻었으나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74에서 0.268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애틀랜타를 8-4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장병호기자

National Pension, Cheil Fabric-Samsung C&T Corporation Merge Seems Difficult <국민연금,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힘들 듯>

National Pension disapproved the merging of SK C&C-SK on the 24th and presented their merging standard between the major affiliates.

Even if their supremacy is enforced and expect positive effect, there shouldn't be any one way damage to the company's shareholder's value.

If National Pension opposes, there is a high chance that merging would meet a dead end. If 70% of the General Members of the Stockholders are to participate, Samsung needs at least 47% of agreement votes.

On the other hand, if Elliot secures 23% of the share, the merging can be relected.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첫 심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SK C&C- SK 합병에 대해 반대하면서 재벌 계열사 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합병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주주총회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삼성은 최소 47%의 찬성지분이 필요하다.

반면 엘리엇은 지분 23%를 확보하면 합병 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9			7		
						5	6	
	8		4	3				
4	3	5			8			
		9			2		3	
	1		8	5			4	
2		8		6	1			
	5			4			7	

					1			
			7	6	8		9	3
			9			8		
	4	6						5
	9				4		6	
5	8			3				2
		4						7
	2			1				8
	5		8		3	4	2	

스도쿠 정답

5	2	4	3	7	6	1	8	9
3	6	1	9	8	5	7	2	4
8	9	7	1	2	4	5	6	3
1	8	2	4	3	7	9	5	6
4	3	5	6	9	8	2	1	7
6	7	9	5	1	2	4	3	8
7	1	3	8	5	9	6	4	2
2	4	8	7	6	1	3	9	5
9	5	6	2	4	3	8	7	1

9	6	8	3	5	1	2	7	4
4	1	2	7	6	8	5	9	3
3	7	5	9	4	2	8	1	6
1	4	6	2	9	7	3	8	5
2	9	3	5	8	4	7	6	1
5	8	7	1	3	6	9	4	2
8	3	4	6	2	9	1	5	7
7	2	9	4	1	5	6	3	8
6	5	1	8	7	3	4	2	9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여자친구가 결혼에 무관심해 답답합니다
실력연마부터 힘쓰길… 하반기 오해 조심

한잔해 남자 79년 12월 2일 양력 18시 29분
여자 82년 11월 16일 양력 4시 27분

Q 6개월 전에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첫 만남을 가질 당시에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만났습니다. 현재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기술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제가 기술사를 취득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취득을 하고나면 만나고 싶지만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개 받을 당시에 여자 친구 이번에 소개받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결혼 하겠다고 얘기 한 것으로 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랑 만나면 자기는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A 아내를 나타내는 정재(正財)의 운로가 승발 해야 어려움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없이 아내의 내조를 잘 받게 되는 것이며 여자 사주에 남편은 정관(正官)인데 이것이 승발하고 있어야 출세를 하고 그 덕에 여자도 상류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풀이를 하면 천간과 지지인 사주팔자에서 같은 오행으로 극(剋:충돌됨)함이 없으며 상호귀인(相互貴人)의 상이라 어려운 때 서로 상부상조가 되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고 사랑한다고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된다면 두 분 궁합은 가뭄에 내리는 빗줄기가 나무를 생하듯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궁합은 이러하지만 상반기 지나 하반기 음력 7월 11월 어떤 오해나 일의 과정에서 잘못 상상력을 동원하여 헤어지는 시기의 혼탁상이 예상되니 이점에 유의하십시오. 자격증으로 많은 돈과 연관되지 않는 다해도 자격증이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해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자신의 무기입니다. 무기가 없을 때 운기가 쇠약해지거나 살아갈 미래에 발전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는 부담스러워 집니다. 2015년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는 하나 시간이 갈수록 불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연마해야지 시간은 금방 흘러가 나이 들어서 눈물로 지새울 수도 있으며 반대로 실력을 연마하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노하우가 있는 발전의 연속선상에 놓일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려는지요. 결혼 결혼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귀인(天廚貴人:하늘천, 부엌주)으로 사람됨이 순수하고 착하며 복록은 두텁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27일 (음 5월 14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0년생** 현재의 바라는 것은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72년생** 다투면 서로간에 이익이 없겠습니다. **84년생** 여행을 떠나면 길합니다.

49년생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1년생**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73년생** 뜻한 바대로 착실하게 살아가세요. **85년생** 사업을 크게만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50년생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마세요. **62년생**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74년생** 능력과 실력이 안정될 것입니다. **86년생**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될 것 입니다.

51년생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63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75년생**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87년생** 의욕적으로 일에 임하세요.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88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53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65년생** 변화가 있게 될것입니다. **77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것입니다. **89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5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66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90년생** 윗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55년생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습니다. **67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79년생** 소원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91년생**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됩니다.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8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7년생 어려운 임무를 맞게 됩니다. **69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81년생** 결실이 맺어질 때입니다. **93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58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0년생** 명예와 부가 따르게 될것입니다. **82년생**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 이겠습니다. **94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59년생 병이 들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71년생** 병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세요. **83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습니다. **95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 위기, 적재적소에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최치선의 세상만사

토요일 예약시간에 맞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접수를 하고 5분쯤 지나자 상담선생이 진찰실로 안내를 했다. 진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교정치료법이 눈에 들어왔다. 돌출입교정, 설측교정, 주걱턱교정, 과다잇몸노출, 덧니교정 등 다양한 증상별 교정법이 안내되어 있었다. 그중 내 눈에 쏙 들어온 것은 주걱턱교정이었다. 단계별로 그림과 설명이 알기 쉽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걱턱 교정은 단순한 교정치료만 있는게 아니었다. 그림에는 아래턱 안쪽부분을 잘라낸 후 교정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

진정시킨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다. 동시에 턱수술 받던 2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갑자기 교정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치아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대신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때 문이 열리며 원장이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원장은 내 치아상태를 살피더니 우선 X레이를 찍어본 후 상담을 하자고 했다.

치아와 턱의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X선 촬영을 하는 데는 2분 남짓 걸렸다. 다시 진찰실로 돌아오자 방금 찍은 X레이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전형적인 주걱턱이다. 벽에 붙어있는 주걱턱 그림과 거의 비슷했다. 모니터의 X선과 벽에 있는 그림이 오버랩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원장은 모니터를 보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다시 내 치아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랫턱과 윗턱이 거리가 멀어서 수술 외엔 방법이 없겠습니다. 주걱턱 수술을 한 후 교정을 해야 완벽할 것 같아요."

나는 원장의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내 상태를 보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원장은 지금의 치아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 큰불편이 없다면 수술이나 교정은 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교정을 하려는 이유는 부정교합의 상태를 멈추게 하고 싶어서였다. 최근 거울을 보다 오른쪽 잇몸이 왼쪽보다 약간 더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교정상담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원장은 유전자지도에 의해 한 번 결정된 자신의 모습을 죽을때까지 바꾸기는 힘들다고 한다. 물론 성형이나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얼굴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연령대별 자신의 얼굴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치아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얼굴의 형태에 맞게 자리를 잡으려는 본성이 있다고 한다. 원장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었다. 수술이나 교정도 결국 자연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되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메르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부의 늦장대처 때문이다. 사람마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교정치료나 수술시기가 필요하듯 국가도 위기때 마다 적재적소에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부장

유승민 찍어내기… 제2의 채동욱 사태 벌어지나

기자 수첩
윤 정 원
<정치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제2의 채동욱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혼외자식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채 전 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청와대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돈 바 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간에 떠돌던 '유승민 찍어내기'를 노골화했다. 자신의 결정에 발목을 잡던 비박(비박근혜) 여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 뿐"이라면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 온 상황을 참작하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결국 여당 지도부,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이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전쟁 선포에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선언했고, 유 원내대표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공개석상에서 읽어가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의 반성문 낭독을 두고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여당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청와대는 '채동욱 찍어내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승민 찍어내기'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 수단이 정치적인 공세 형태를 띨지, 아니면 채동욱 찍어내기식이 될지는 '유 원내대표가 얼마나 버티느냐, 김무성 대표가 어느 선에서 보호막을 거둘 것이냐'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인 사

■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

■ 직감사담당관 이 진
▷운영지원과장 이상훈(이상 부이사관) ▷무인기사업팀장 원호준 ▷물자규격팀장 김상희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조우현(이상 기술서기관) ▷전투함사업팀장 최진용 ▷전투체계사업팀장 강환석 ▷원가검증2팀장 채종옥(이상 서기관)

■ KDB산업은행
△본부장 ▷연금신탁본부 이정은 △지역본부장 ▷강남 홍태주 △부점장 ▷심사1부장 박형근 ▷심사2부장 공정택 ▷기업금융3실장 나순익 ▷기업구조조정2실장 이종철 ▷무역금융실장 전태욱 ▷자금부장 김수현 ▷연금사업실장 백호열 ▷리스크관리부장 강신구 ▷IT기획부장 채낙균 ▷e-뱅킹전산부장 황수범 △지점장 ▷마포 김태호 ▷인천 황교영 ▷녹산 전호근 ▷구미 정세명 ▷포항 배상빈 ▷압구정 정헌철 ▷잠실 장영국 ▷수원 정진십 ▷당진 유재원 ▷목포 이행진 ▷광저우 김양재 ▷아부다비 박용하

■ 동아일보
△승진 및 전보 ▷AD본부장 국장급 허엽 ▷문화사업본부장 국장급 이인철 ▷경영전략실장 국장급 김승환 ▷편집국 사회부 부산경남취재본부장 부장급 조용휘 ▷마케팅본부 경인팀장 부장급 이재민 ▷편집국 사회부 광주호남취재본부장 부장급 정승호 ▷경영지원국 인사팀장 차장급 신재균 ▷〃 총무팀장 부장급 박정수 ▷〃 자산관리팀장 부장급 최종진 ▷〃 시설관리팀장 부장급 장동하 ▷재경국 재무팀장 차장급 안재혁 ▷편집국 사회부 차장 이성호 ▷〃 스포츠부 차장 양종구 ▷마케팅본부 서울팀 강북파트장 차장급 김일환 ▷〃 지방동부팀 대구경북파트장 차장급 최익성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장 차장급 이규신 ▷〃 지방서부팀 호남파트장 차장급 이호경 ▷출판국 출판광고팀 신동아광고파트장 차장급 서청룡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국장급 권순활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장 부국장급 장환수 ▷AD본부 AD1팀 차장급 이종기 ▷미래전략연구소 신성장동력팀 차장급 김주현 ▷〃 경영지식팀 차장급 이방실 ▷편집국 사회부 부산경남취재본부 부장급 강정훈 ▷〃 〃 광주호남취재본부 부장급 김광오 ▷출판국 출판관리팀 차장급 송원철 채인희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차장급 이정우 ▷AD본부 전략영업팀 차장급 오형진 ▷〃 광고총괄기획팀 중소기업파트 부장급 조병익 ▷마케팅본부 서울팀장 부장급 이호열 ▷〃 지방서부팀장 부장급 정일균 ▷〃 대외협력팀장 부국장급 최혜식 ▷〃 경인팀 경기파트장 차장급 이정호 ▷〃 대외협력팀 교육실사파트장 차장급 최경재 ▷〃 서울팀 부국장급 배영삼 ▷〃 서울팀 강남파트 차장급 유정헌 ▷〃 경인팀 차장급 신동진 ▷〃 경인팀 경기파트 차장급 김상윤 ▷〃 지방서부팀 충청파트 차장급 홍석주 ▷〃 지방서부팀 호남파트 차장급 함완식 ▷〃 지방동부팀 대구경북파트 차장급 이상원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 차장급 이현수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 차장급 최종범 ▷경영지원국 기획위원(채널A미디어텍 기획위원 겸직) 국장급 이세영 ▷〃 기획위원(인촌기념회 사무국장 겸직) 부국장급 장종희 ▷〃 기획위원 부장급 김윤덕 ▷〃 시설관리팀 차장급 정경택 이재학 ▷재경국 회계팀장 부장급 하효성

■ TV조선 △보임 ▷총괄전무 김민배 ▷보도본부장 최희준

여름철 식중독 '사각지대'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청소 뿐만 아니라 식재료 보관 중요"

소비자 119

여름철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다 보면 기온이 떨어져 음식물이 쉽게 부패된다. 각종 세균 번식이 빨라져 냉장고 속 음식의 신선도를 위협하며 악취도 나게 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위생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냉장실 내부 청소는 필수… 냉동실도 신경 써야

여름철에는 내부 청소가 필수다. 냉장고 속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보관하고 분리되는 선반을 꺼내 주방세제를 푼 물에 담가 놓는다. 냉장실 안쪽에서 바깥쪽 순으로 닦고 눌어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음식물찌꺼기는 스팀타올로 눌러준 후 주방세제와 식초를 섞어 스펀지로 닦아내면 된다.

최근에는 다목적용 주방 세제가 출시돼 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다. CJ라이온 참그린 '주방의 기적 항균스프레이'는 뿌리고 5초 뒤 닦아 내는 스프레이형 주방세제로 냉장고를 비롯해 조리대·전자레인지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메소드 다목적 세정제'는 욕실부터 주방 청소까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세정제다. 식물성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냉장고 속 불쾌한 냄새는 넓은 그릇에 물과 레몬 또는 쑥을 담아두거나 전용탈취제를 사용해 악취를 없애면 된다. 애경에스티 '홈즈 탈취탄 냉장고용'은 천연탈취성분 배합으로 강력탈취는 물론 냉장실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 준다.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는 끓인 물을 사용하고 신선도를 위해 냉동실 전용 탈취제를 넣어주면 된다. '홈즈 탈취탄 냉동실용'은 탈취효과에 좋은 비장탄과 활성탄을 사용해 음식 냄새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성에가 생긴 부분은 분무기를 이용해 미지근한 물을 뿌리고 실리콘 주걱으로 긁어내면 된다.

◆청소만큼 중요한 보관법

야채는 구매 후 조리하기 쉬운 상태로 손질해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육류와 생선은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1인분씩 나눠 평평하게 펴서 보관한다. 락앤락의 내열유리밀폐용기 '락앤락 오븐글라스'와 '비스프리'는 완벽한 밀폐력으로 음식물이 새지 않는 것은 물론 세균이 침투할 염려가 없다. 락앤락 오븐글라스는 내열성이 뛰어나 냉동실·전자레인지와 함께 오븐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0215@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2015년 6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살고 싶고, 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정제주가
문화창조, 스마트관광, K-Beauty, 에너지 신산업으로 연결되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숨쉬는 더 큰 가치로 발전합니다

daumkakao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AMOREPACIFIC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이 함께합니다